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901호 현대불교

29

2012년 8월 15일(음 6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잘됐다 못됐다 하고 자기를 내세우다보면 공부는 팍입니다

비가 안 오는 대신에 무척 덥죠? 이렇게 날이 곳어도 더불어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백종(百種)을 지냈는데 그 백종을 왜 지내야 하는지, 백종이 왜 생겼는지,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현재에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공부라는 게 무슨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탄생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사는 게 공부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이 세상에 나오면 불(佛)이요, 나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배우는 것이 바로 교(敎)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별다른 게 아니죠.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빼놓고 불교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렵게 믿지 마시고 간편하게 믿으세요. 내가 움직여주고 그러는 것이 다 공부니까요. 또 참선이요. 마음을 잔잔하게 가라앉히면 그냥 좌선이 되고요, 누워서 보면은 또 와선이 되고요, 앉아서 보면은 그대로 좌선이 되고요, 그 대로입니다.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하면 행선이 되고요, 모두가 그대로 참선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보면은 이 마음 안으로 들어대야죠. 바깥으로 내서 믿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서 믿고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거기다가 맡기고, 잘됐으면 '감사하구나!' 하고, 또 잘 안됐으면 '안된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하다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여기서 (가슴을 짚어 보시며) 감응이 되고 그 감응이 이제 좀 지나고 보면 말이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와요. 말이 하고 싶을 때에, 어떠한 말을 해야 하느냐. 남이 물어보면 관(觀)하는 도리만 얘기해주고 자기가 이만큼 배웠다고 내세우지 말라.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 거라고 내세우지 말라. 이것이 안됐다고 내세우지 말라 이겁니다. '안됐다 됐다, 이게 옳다 그르다 또 나는 이만큼 하다보니까 이만큼 갔다.' 이런 말은 안 해도 자기가 말하는 거 보면 자기를 내세운 게 되거든요. 이거는 자기가 없는 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만약에 바깥으로 그달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잘됐다 못됐다 이거를 내세우다보면은 공부는 '팍'입니다. 제 지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인데, 그러하다 보면은 바깥으로 자꾸 꼬달리다 꼬달리다 쪼

끔쪼끔 가다보면은, 자기가 그만 빈집이 되고, 자기 선장은 간 곳이 없죠. 그러하면 영계성으로써 구차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는 뭐 알니까마는 그 단전호흡을 한다고 하면서 바깥으로 몸으로 꼬달리다 보니까 몸도 바깥이거든요, 이게. 물질계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꼬달리다 보니까 그 영계가 들려서 아단인 사람도 있고, 정수리로 뜨거운 게 감이 올라와서 귀로 들리고 아단인 사람도 있고, 몸이 떨려서 아단하는 사람도 있고, 몸을 부지를 못하고 그냥 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식들은 이리저리 떠들게 되고 모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복으로 믿으면서 바깥으로 자꾸 꼬달리고 무슨 무슨 부처님 부르고 이렇게 아주 지극 정성으로 하는 사람이 이, 영계성에 걸리는 겁니다. 이런 부처님이 그러는 게 아니고, 이집 저 집 떠다니고 기웃거리는 그런 영령(英靈)들이 들어서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영령이 들어서는 지도 모르고, 이게 자기 몸에 있는 자체도 지금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면은 그냥 아주 간 사람이 되죠. 맛이 간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참, 자기 혼자 그런 것도 뭐하지 만 가정이 다 이거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극히 조심하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나쁘다 좋다, 믿다 곱다

또는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서 항상 조심하고 미워하고 '저런 거 그냥 아이,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면은 차라리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과 생각, 그것이 바로 모두 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을 하면 구업이 되고, 마음으로 하면 의업이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층 더 그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모든 거, 바깥에서 딱치는 거, 미운 거 고운 거 이리더라도 '믿다 곱다' 하질 말고 안에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이 저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니까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림 · 최주현

하고 거기다 (가슴을 짚어 보시며) 맡기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해줘라 이런 말을 항상 하죠. 그래야만이 업이 녹아버린다는 얘지요.

그러신 양반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더니 자꾸 관(觀)하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주니까 어느 날 그냥 술도 먹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돌아가더라구요. 그 마음을 그렇게 믿게, 그냥 말을 약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악은 모아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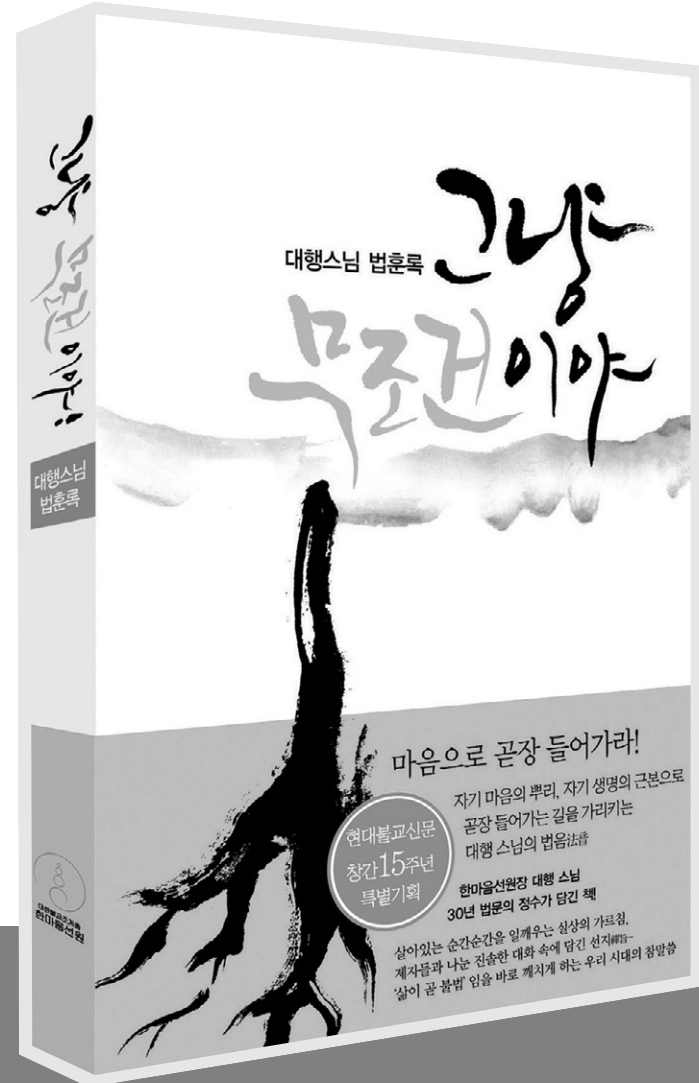
그러니 여러분께서 극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든가 또 지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디고 좀 느리고 이런 거는 있을지언정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꼭 없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항상 여러 분한테 얘기해드리듯이 녹음기에 자동녹음이 됐는데, 이거 자동으로 또 거기다 입력을 하면 그 앞서 입력이 없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잘라도 아니 되고, 끊어도 아니 되고 이런 아니 됩니다. 업을 끊으려면 칼로 물 베기죠. 그거 안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서 없애는 거 밖에는 없습시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거 소홀히 듣지 마십시오. 첫째, 이 공부하는 데에 도로아미타불을 만드는 그런 이치가 있는 것은 잘됐다 못됐다 또는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을 남한테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러는 것이 제일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 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海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열쇠를 얻는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면서 습을 떼어가면서 모든 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철 사는 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다음에 또 나와서 고생을 또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다음 생애 또 나와서 고생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 자기 위로는 부모와 아래로는 자식들과의 연관성을 물라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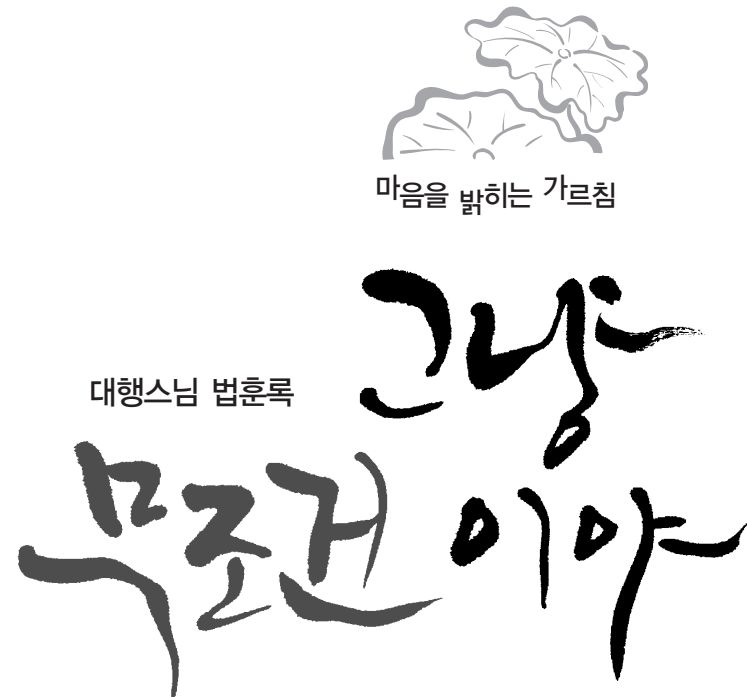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 主人翁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헌불삼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9면에서 계속

라 할 수 없죠. 항상 이렇게 염주가 같이 꿰여 있듯이 그렇게 꿰여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녀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깁니다. 빨리 성취를 해야 빨리 그녀들도 따라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칠석이다 백중이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칠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젊음을 누리고 이렇게 살고 가는 겁니다. 아주 간편하게 생각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이렇게 가다보니깐 일부 일초만 앞서는 미래입니다. 일초가 지났어도 과거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중: 네.

크스님: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연방 뒤로 하고서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지금 촛불을 켜고 칠석을 맞이합니다. 이 칠석이라는 것은, 이 내 칠석 부처님, 칠성 부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칠성이라는 것은 내 몸과 더불어 같이 그 성자라고 할까? 불성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을 누구인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석이라고 하고 칠성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동시에 미래로 자꾸자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둘로 보지 않는다면 칠석과 백중은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중이 또 무엇이나, 백중은 우리가 죽어서 모두, 이게 참 말을 하려면 간단에, 길어도 할까요?

대중: 예.

크스님: 이게 여러 가지로 분배가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 말합니다. 사람도 되거나 바뀌어서 짐승이 사람도 되고, 사람이 짐승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우리가 생시 때에 어느 만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칼산지옥이다 화탕지옥이다 이리요? 또 오무간지옥이다 독사지옥이다, 이러한 이름들이 허다 많습니다. 이것을 다 말로 할 수 없어서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죽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닭이 된다거나, 독사가 된다거나, 소가 된다거나, 개가 된다거나 뭐, 토끼가 된다거나, 사람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독사로 태어났다면 그게 독사지옥입니다. 허물을 입었으면 다시는 벗기가 힘들다 이겁니다. 그 독사의 모습을 벗기가 힘들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화탕지옥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그저 몇 번씩 태어나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짧은 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들어가고 수십 번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찌 화탕지옥이 아니겠습니까? 또 때로는 칼로 그냥 산 놈을 탁탁탁 쳐서

모두 먹죠? 허허. 그런 거를 볼 때 그게 어찌 칼산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칼산지옥이니 화탕지옥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의 삶 그대로입니다. 현실 그대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옥도 하나하나 화탕지옥이니 독사지옥이니 뭐, 모두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하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옥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나쁘게 된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닙니다. 현실에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딱 떠나면은 미래로 해서 한번씩 돌아서 다시 현실로 온단 말입니다. 가서는 또 현실로 다시 와요. 한 발 한 발 미래로 다가가죠. 뭐 미래가 금세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발 한 발 걸어서 미래로 가고 있죠. 미래로 가서 다시 현실로 또 오는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다 가지

런기가 그냥 나오죠. 그런데 아, 그놈의 길 잘해서 딴 데로 옮겨주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막 작대기로 쳐서 죽이거든요. 죽이려면 그냥 또 그 집안이 폭삭 망하죠.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인 거와 같죠.

나는 그런 거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을 합니다. 진실치 않은 거는 말을 해서 한테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부처님께서 아예 금한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한테 떨어뜨린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옳다 그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 자체가 한테 떨어진다구요. 그랬듯이 이거는 진실한 말이 아니라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안 하고도 모두 일체 만물이 다 살고 있는데 굳이 말을 해서 그릇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묵언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비유컨대 한 가지를 말을 해도 열 가지

한생각이 잘못돼서 행동 하나하나가 잘못되고 이런다면은 그 과보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누가 뺏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잘한 거든 못한 거든 다 자기한테 오는 것이지 누구한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자기대로 그저 마음 하나 잘 쓰는데 뭐 그렇게 해로운 일이 있었습니까? 마음 하나 잘 쓰면 자기가 흐뭇해서 좋고, 좋은 일 한 번 했으면은 자기가 흐뭇하고 좋은 것이지 남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옥이 따로 없고, 지옥도 천당도 우리 삶의 보람도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로 지옥고를 당하는 꼴을 항상 보고 있습니다. 생선을 놓고 그냥 탁 자르는 거 보시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또 개도 목을 매서 나무에다 매달아놓고는 태웁니다. 발버둥이를 막치고 그냥 털이 다 타고 그게 그냥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발버둥이를 쳐도 그런

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죠. 내내 젊어서부터 계속 사냥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나간다는데 부인이 아주 그냥 언짢더랍니다. 절 에를 다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보 오늘은 사냥 가지 마시오, 마시오" 그러니까 "아이구 참, 뭘 소리를 하는 거야? 한 마리 잡아다가 먹어지." 하하, 아! 이리고선 나가거든요. 그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죠. 그대 내버려뒀더니 저녁에 죽었다고 오더랍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총을 쏘다 쏘다 하는 것이, 그냥 사냥꾼 있는 거를 짐승으로 봐서 쏘가지고는 그 사람이 또 이 사람을 그냥 쏘어요. 그러니까 둘이 다 죽은 거예요. 사냥꾼들 돌아서 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둘을 사자인 줄 알고 쏘서, 그냥 둘이 굴러서 죽기도 하고, 또 어떠한 데는 어린애를 넣어놓으면은 짐승의 혼백이, 영혼이 와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너도 자식을 길러봐라 하고요. 영혼이 태어나서 보면은 무진하게 뛰고 속속하고 무진하게 그리는 게 다 그런 과보죠. 그러니까 인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자식만 낳으면 되느냐 이 소립니다. 원수가 태어나도 자식이 좋다고 하겠느냐. 서로 과보가 돼서, 업보가 돼서 서로 태어나도 좋겠느냐. 그러니깐 애만 낳으려고 할 게 아니라 애를 낳기 이전에 그거를 찬찬히 자기 애와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놓고 '좀더 착실하고 아주 영리한, 물리가 터진 그런 영령을 내 아들로 점지해 주소서.' 하고 '점지해주는 것도 너뿐이 아니냐.' 하고 거기다가 노라 이런 소리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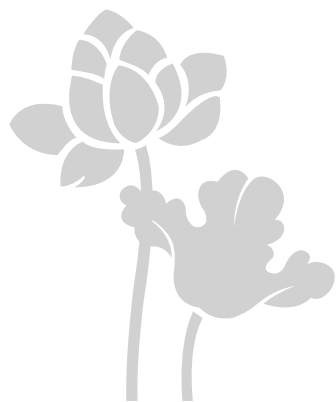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실질적인 겁니다. 나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옛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미래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현실 얘깁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또 사는 동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면 앞으로 요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이렇게 또 살게 되니까 그거는 뭐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독 안에서 벗어나야 이 소립니다. 내 몸통이 독이니까요. 내 몸통이 독 안과 같아요. 통과 같아요.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야 지구에서도 벗어나고, 지구에서 벗어나야 이 우주 세상에서도 벗어나고, 우주 세상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어서뿐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두 번째도 또 죽어라, 세 번째도 또 죽어라 이르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5년 8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 상해도 내안으로 놓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부드럽게 행동을 해야만이
수없는 광년을 거치면서 나온 업식이 거기에서 녹게 되고
관습과 업식이 다 녹아야
하늘에서 인정을 받고 해인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부해가면서
숨을 빼어가면서 모든 것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살겠습니까.



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이 온 거고, 현실에 어떻게 자기가 사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 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에는 때에 따라서 너무나 참혹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돌아오는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게나 살기만 하면 되고 먹기만 하면 되고 잘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바동바동하죠.

때로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죽어서 그 집의 개로 태어난다거나, 또 고양이로 태어난다거나 하는데 그 고양이도 알고 개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구렁이로 태어났어도 바로 그 집을 지켜준다고 그 집 가서 숨어서 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짐을 고치다가 보이면은 천석꾼이다, 뭐 만석꾼이다 하고 그러다가 아, 집이 헐어져서 고치려고 보면, 큰 구

가 다 그렇구나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그것만 그러려니 그렇게 하진 마세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내 국내도 말지 못하는 그러한 걸로 다가 취급을 하는 것도 있죠. 그거는 땅 속에서 사는 미꾸라지나, 무슨 지렁이나, 무슨 벌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도,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모이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기사는 기사대로 모이고, 상인은 상인대로 모이고, 교수는 교수대로 모이고 그러듯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가라 오라 해서 모이는 게 아니듯이 차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분배가 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벌레로 갈 놈은 벌레로 가고, 사람으로 갈 놈은 사람으로 가고, 짐승으로 갈 놈은 짐승으로 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얘깁니다. 이걸 누가 가라 오라 해서 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이게끔 돼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니깐 억울합니까? 허허. 내

소용 없죠. 그냥 목을 톱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어 버리죠. 이런 것도 많이 보시죠? 그냥 꺾꽂이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울고 불고 발버둥이를 쳐도 그것은 살 길이 없는 이런 이치죠. 소를 쫓장등을 그냥 때려서 쓰러지면은 울고 발버둥이를 쳐도 살 길이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가 그런 데로 갈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고삐를 매서 이렇게 끌면은 영영 울죠. 사람도 자기가 죽어갈 줄은 압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죠. 자기 고삐를 매서 끌고 갈 때가 온다는 얘기는 알죠. 그런데 어느 때에 울지 모르죠. 허허.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첫째에 주의하라. 죽여놓는 것도 많은데 생생한 거 먹는다고, 허허, 똘이냐? 그냥 잡아서 먹죠. 그런 거 보면은 모두가 자기 인생이라는 것은 생각이 못하구요, 그렇게 하거

다양정 캐릭터 차걸이 · 핸드폰걸이

움자 차걸이는 불교의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움자 모양을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제작하였습니다. 움자를 지니고 있으면 나쁜일을 물리쳐주고 늘 수행하는 마음을 가질수 있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엉이 걸이는 항상 밤에 눈을 뜨고 있어 집안의 재산을 지켜주고 안경을 기원해주는 새입니다. 집안이나, 핸드폰 걸이로 사용하시면, 당신을 항상 지켜주는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목어 걸이는 불교의 4가지 보물 중 한가지로 물에 사는 중생을 구제해 준다고 합니다. 물속의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찰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항상 눈을 뜨고 있다하여 수행하는 자의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목어를 옆에 두시면, 수행하는 마음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할 수 있습니다.



다양정 제품은 100% 수공예 작품이고, 모든제품을 다양정에서 직접 제작합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움자차걸이 4종류

종류	가격	제조	용도	기타
움자차걸이	33,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노리개	빨강,노랑,파랑,녹색
부엉이걸이(大)	20,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걸이(中)	15,000원	국내제작		
부엉이걸이(小)	10,000원	국내제작		
목어걸이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장식용	·
부엉이 향낭	15,000원	국내제작	차걸이,가방악세서리,방향제	페퍼민트 자연향

판매처 :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목어걸이



부엉이걸이